

# 셰익스피어의 희곡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에 나타난 과도함과 이국성

김 미 경

백석대학교

## 1. 들어가며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한국 셰익스피어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왔다. 최근 10년간 *Shakespeare Review*지에 실린 이 작품의 연구 경향을 분석해본 결과 주로 주제적 분석과 형식적 분석, 그리고 뮤지컬이나 영화와의 비교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경옥, 김경혜, 이행수는 각각 작품에 나타난 에로스적 측면, 페미니즘 전략의 시도와 한계, 욕망의 추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형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용관, 윤희억의 논문들 예로 들 수 있는데 각각 이중파국의 설정의 특이성과 바흐친적 패러디 양식에 준거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조윤경은 두 편의 논문에서 각각 뮤지컬 <클레오파트라>(2008)와 영화 <클레오파트라>(1963)와의 비교 분석을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의 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클루제(Kluge, S)는 도덕성과 비통함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였고, 라일(Ryle, S. J)은 영화화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고, 해블리(Havely, C. P)와 크레인(Crane, M. T)은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기존의 셰익스피어 학

자들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로서 안토니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그녀의 이국성에 기초한 것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서구 비평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엄격한 도덕주의적 비평과 낭만주의적 비평, 그리고 변증법적 비평 경향들을 기본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필자의 글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으로서 안토니의 과도함과 클레오파트라의 이국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는 여행자로서의 안토니의 모습이 부각되어 재현되어 있고 “이국적임”과 “과도함”이라는 모티브가 주요하게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플루타크의 원전에서 방랑자의 신화는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는다. 반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는 알렉산더 신화와 헤라클레스의 신화가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다. 알렉산더 신화는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더의 후손이라는 점과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공주 록사나와의 이종족 결합을 함으로써 이종족 결혼을 용인한 점에서 강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헤라클레스의 신화는 영웅적 난잡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덧붙여, 버질(Virgil)의 『이니아드』(Aeneid)에서는 경건과 난잡함, 로마제국과 세계시민이라는 대립되는 모티브가 등장하고 타락한 알렉산더로서의 안토니가 재현되며, 안토니의 패배는 동양의 미개함에 대한 서양, 즉 로마의 승리로서 묘사되어 있다. 길리스(Gillies, John)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듯이 플루타크(Plutarch)에서는 저자 자신이 그리스인이고 또한 알렉산더 숭배주의와 코스모폴리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부정적으로 묘사될 시점에서 이는 인종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원전인 플루타크나 버질과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 나타난 안토니의 과도함과 그 과도한 사랑의 기초로서 클레오파트라의 이국성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 2. 안토니의 과도함

플루타크 자신은 그리스인이었으며 알렉산더가 창시하고 안토니우스가 옹호했던 범세계주의적인 제국관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플루타크에

서 전형적으로 변절자 사령관인 안토니가 현지인처럼 살려고 하고, 이국 여왕과 병력을 결합하고, 동양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략하는 ‘과도함’의 로마 드라마를 거의 볼 수 없다. 또한 플루타크에서는 클레오파트라도 기본적으로 이국적인 여왕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플루타크가 클레오파트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종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이다. 안토니우스의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는 이종족 결합이라기보다는 간음에 해당한다. ‘과도함’의 주제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 깊이 있게 스며들어 있다. 그러한 이미지는 『줄리우스 시저』에서 시저가 콜로수스(Colossus)에 비유될 때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좁은 세계를 지배하죠, 마치 콜로수스처럼. 그리고 우리 하찮은 인간들은 그의 거대한 다리 밑에서 우리의 불명예스런 무덤을 찾아 기웃대죠.

Why, man, he doth bestride the narrow world/  
Like a Colossus, and we petty men/  
Walk under his huge legs, and peep about/  
To find ourselves dishonourable graves (1.2.136-9)

이러한 종류의 이미지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를 콜로수스에 비유할 때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그의 다리는 대양을 지배하고 뒤쪽 팔은 세계의 정상에 이르렀죠 whose legs bestrid the ocean, rear’d arm crested the world” (Shakespeare's *Plutarch*, p. 180)라고 묘사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데 이는 셰익스피어가 안토니를 줄리우스 시저의 과도함의 전설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셰익스피어가 시저보다는 안토니를 과도함의 전형으로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안토니의 과도함은 제국주의적이라기보다는 에로틱하거나 존재론적인 과도함이다. 안토니는 로마 사령관으로서 주위 민족들을 정복하려는 제국주의자로서의 과도함을 보여주기 보다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이 보통의 수준을 넘어 과도함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준다. 이 극의 첫 대사는 “우리 총사령관의 맹목적 애정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넘쳐 흐른다 this dotage of our General’s/O’erflows the measure” (1.1.1-2) 로서 우리에게 안토니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과도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필로(Philo)는 안토니가 앞에

앉아있는 황갈색의 피부를 가진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에 놀라워한다. 안토니는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가 아니라면 사랑에 한계를 두는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여행자의 특성에 맞게 그의 새로운 세계는 그가 한때 소유했었던 세계의 소멸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Gillies 116).

로마여, 티베르 강물 속에 빠져 없어져도 좋다. 튼튼한 아아치도 무너져 내려라. 여기가 나의 살 곳이다. 왕국도 한낱 흙덩이에 불과하다. 이 더러운 지구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먹여 길러주는데 불과하다. 인생의 참된 고귀함은 바로 이런 데 있다.

Let Rome in Tiber melt, and the wide arch  
Of the ranged empire fall. Here is my space.  
Kingdoms are clay. Our dungy earth alike  
Feeds beast as man. The nobleness of like  
Is to do thus (1.1.35-39)

여기에서 안토니는 자신을 클레오파트라에게 굴복시키고 그로테스크한 나일강을 자신의 대안으로 받아들인다. 만약 강이 안토니의 과도함에 대한 은유적인 장소를 대표한다면 바다는 또 다른 과도함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바다는 안토니의 과도함의 상징적인 요소이다. 바다는 자유로운 축제적 요소이며 이는 또한 치명적이다. 그래서 안토니는 두 번이나 해전을 치르지만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 안토니의 해전을 치르겠다는 첫 결정은“우리는 육지전에서 성공을 거두곤 했죠 (3.7.64-65)” 라고 그를 상기시키는 장군의 반대이견에 부딪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안토니는 자신의 다음번 전투인 육지전에서 승리하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다시 바다에 의존함으로써 패배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다의 이미지는 안토니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연관되어 과도함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안토니의 과도함은 갑작스러움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셰익스피어는 안토니를 갑작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치는 인물로 재현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기 전 안토니는 로마인의 전형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필로의 첫 대사는 안토니가 맹목적 애정으로 빠져드는 것의 갑작스러움과 완벽함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전달한다. 안토니의 대조적 모습은 시저의 대사에서 좀 더 강력하게 묘사된다.

안토니우스여, 그 쾌락의 술상을 거두어라. 모데나에서 패전했을 때 그대는 집정관이던 히르티우스와 파느냐를 살해했었지. 패전의 뒤를 이어 기아가 휩쓸었지. 고생을 모르고 자란 그대가 야만인보다도 더 강인한 인내로 그 기아의 숲을 헤쳐 내지 않았던가. 말 오줌을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면 구역질을 하는 누르무레한 웅덩이 물도 마셨고, 더러운 울타리에 열린 시금털털한 열매도 꿀맛처럼 맛있게 먹지 않았던가? 아니, 초원이 눈으로 덮였을 때는 수사슴처럼 나무껍질마저 먹었었지. 알프스 산 속에서는 그 누군 보기만 하고도 죽었다는 이상한 날고기까지도 먹었다면서? 이와 같은 고난을 - 지금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대의 명예가 손상되겠지만 - 용사답게 잘 극복하여 얼굴조차 살이 안 빠졌었지.

Antony, / Leave thy lascivious wassails. When thou once/ Was beaten from Modena, where thou slew'st/ Hirtius and Pansa, consuls, at thy heel/ Did famine follow, whom thou fought'st against-/ Though daintily brought up - with patience more/ Than savages could suffer. Thou didst drink/ The stale of horses, and the gilded puddle/ Which beasts would cough at. Thy palate then did deign/ The roughest berry on the rudest hedge./ Yea, like the stag, when snow the pasture sheets,/ The barks of trees thou browsed. On the Alps/ It is reported thou didst eat strange flesh,/ Which some did die to look on (1.4. 55-67)

인용문에서 묘사하듯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기 전 안토니는 금욕적 인내의 전형이었다.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이후 그의 치명적으로 이상한 날고기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더 향연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정욕이 되어 버렸다. 그의 과도함은 극의 전개상 1막 4장에서 서술된 그의 로마인의 전형으로서의 모습과 2막 이후 재현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맹목적 애정의 전개로 볼 때 매우 갑작스러우며 이러한 갑작스러움이 그의 과도함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술과 향락의 늪에 빠져있는 현재의 안토니는 패전과 기근을 극복한 과거의 로마인의 전형으로서의 안토니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안토니의 애정의 과도함에 대하여 테리 이글튼은 “실리주의자 로마인의 엄격한 균형이 격렬한 과도함과 연관된 꽤 다른 가치의 기준을 위해 거부되어 진다”(Eagleton 87)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그의 분석에서도 안토니의 에로틱한 과도함은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한다. 이글튼이 언급한 꽤 다른 가치의 기준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애정에 있어서의 광신적인 격렬함을 가리키며 그는 이러한 격렬한 불균형으로부터 완고한 가치가 쟁취되어 진다고 분석했다. 모호하게 풍요롭고 치명적인 허구에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궁극적인 것으로 바뀐다. 각각의 시간의 공허한 순간을 정신없는 기쁨으로 채우고 각각의 흘러가는 감각을 열정적인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이러한 죽음을 향한 결연한 삶은 정치적 무책임의 결정판이다. 이글튼은 셰익스피어가 다른 극에서보다 귀족 계급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좀 더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그들 자신의 독특한 규범이 되고 극적으로 방종하고 미완성의 상태인 것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공감을 유도했다고 평가한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인이며, 안토니가 머리가 둔한 레피더스(Lepidus)에게 악어를 무표정하게 묘사하는 장면은 그 자체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묘사될 수 없는 사물 자체의 본연의 모습을 상기 시킨다 (2막 7장). 안토니의 육지전보다 해전을 선택하는 성급한 결정은 존재주의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체를 위해서 무모하게 감행된 아무런 이유 없는 행위이다. 그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반반의 확률인 상태에서 죽음을 재촉하는 선택이다. 한편, 셰익스피어는 안토니가 자살하려는 결심을 하는 것을 동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기 파괴의 선택은 결단, 용기, 자기주장, 그리고 변신의 행위이며 비열한 세상에서의 로마 장군의 최후의 명예로운 선택인 것이다(Miola 147). 안토니의 자살은 로마인의 명예에 대한 사랑과, 불명예를 혐오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그것은 또한 안토니의 로마와 로마적 가치들을 거부함을 보여준다. 자신의 목숨을 취하기 전에 안토니는 자신의 갑옷을 버린다(4.14.37-41). 갑옷의 제거는 상징적으로 모든 전투와 제국, 그리고 세계의 요구를 거부함을 보여준다. 7겹의 방패도 자신의 뛰는 심장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The sevenfold shield of Ajax cannot keep/ The battery from my heart. (4.14.37-41)’ 군사적 영웅주의의 한계를 시사한다. 안토니의 심장은 로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군사적 열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슬픔 때문에 터진다. 안토

니의 죽음은 최소한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데려다 줄 것이다 (4.14.50-4). 그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안토니는 운명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살기를 거절한다. 사랑과 의무의 원형적인 갈등 사이에서 사랑을 선택한다.

### 3. 클레오파트라의 이국성

필자는 안토니의 에로틱한 과도함의 기본으로서 클레오파트라의 이국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정치적, 성적으로 능동적인 여성 인물로, 남성성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제국적, 가부장적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여왕은 나일강의 악어나 뱀, 암말등과 같은 동물적 은유로 자주 묘사되고 있고, 창녀, 집시, 마녀에 비유된다. 또한 그녀와 동일시되는 이집트 역시 정치적, 도덕적으로 로마와 상이하게 다른 세계로 재현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셰익스피어의 원전이 되고 있는 플루타르카 버질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인으로 재현되어 있는 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흑인성이나 능동적 섹슈얼리티가 부각되어 재현되어 있다. 즉 셰익스피어는 그녀의 이집트 여왕으로서의 신비로움과 이국성을 안토니를 매료시킨 치명적 요소로 재현하고 있으며, 그녀의 이국성이라는 모티브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에게 있어 이집트와 이집트인들의 특성은 나일 강에 의해 전형적으로 보여 진다. 폼페이우스의 배에서 이루어지는 향연은 나일 강의 홍수에 대한 대화로 시작한다.

나일 강이 범람하면 할수록 풍년이 들 가망이 많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 농부들은 끈적끈적한 진흙에다 씨를 뿌리지요. 그러면 얼마 안 돼서 수확기가 닥쳐옵니다.

The higher Nilus swells,/ The more it promises; as it ebbs, the  
seedsman/ Upon the slime and ooze scatters his grain,/ And shortly

comes to harvest (2.7. 20-24)

그러나 곧이어 이 나일강은 축제다운 면모를 띠게 된다. 레피두스는 술이 취한 상태로 “거기엔 이상한 뱀이 있다지요?”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당신의 이집트 뱀은 태양의 작용에 의해 진흙에서 자란다면서요? 악어도 그렇고요?”라고 논평한다. 이집트는 나일 강과 그것의 자연적 경이로움에 의하여 재현된다. 또한 자연현상에 있어서 기괴함은 인간영역에서의 축제와 병행한다. 그러므로 가장 이집트적인 표현이 이 극의 가장 축제적인 장면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나일 강에 대한 담론은 축제적일뿐만 아니라 몽상적이고, 신비롭다. 레피두스가 “악이란 놈은 어떻게 생겼소?”라고 묻자 안토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모양은 제 모양 같고 넓이는 제 넓이만큼 넓으며 키는 제 키 만큼 크고 제 손과 발로 움직여 다니죠. 제가 먹은 자양분으로 살고 일단 그 몸에서 원소가 빠져 버리면 전생하죠.

It is shap'd, sir, like itself, and it is as broad as  
it hath breadth. It is just so high as it is, and moves  
with it own organs. It lives by that which nourisheth  
it, and the elements once out of it, it transmigrates (2.7.41-44)

비유를 억제함으로써 안토니는 번역과 언어적 차용, 그리고 심지어 지식 그 자체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로마 부호로 번역될 수 없고 그러므로 ‘미지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국적인 것을 자신의 부호 밖으로 밀어냄으로써만 차용할 수 있다. 또한 이국적인 것은 진정으로 이국적인 것임을 지속할 때만 그 고유성과 가치를 지닌다(Gillies 121). 안토니의 농담의 심오한 뜻은 악어가 클레오파트라를 상징하는 전령의 동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잘 이해된다.

안토니우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 거야. 어쩌면 나일 강의 내 정다운 뱀은 어디 있는가? 하고 중얼거리는 지도 몰라. 그분은 날 그렇게 부르셨지. 그런데

지금 나는 가장 맛있는 독을 마시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태양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아 살결이 까맣게 타고, 세월이 흘러 주름살이 많아진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He's speaking now,  
 Or murmuring, 'Where's my serpent of old Nile?'-  
 For so he calls me. Now I feed myself  
 With most delicious poison. Think on me,  
 That am with Phoebus' amorous pinches black,  
 And wrinkled deep in time (1.5.24-29)

안토니의 악어처럼 클레오파트라라는 자신의 '다름'에 있어 신비한 존재이다. 그녀는 고대인이고, 흑인이며, 태양에 그을렸고, 파충류와 같으며, 자신의 독에 취해 있다. 언어와 범주를 거부하는 기괴한 것과 경이로운 것의 혼합체이다. 그녀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이집트 여왕의 고유성을 대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에노바부스가 비유적인 용어로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그 역설적임이 나타난다.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않는 그 교태야말로 언제 봐도 싱싱한데 왜 버릴까. 다른 여자들은 한번 만족을 느끼고 나면 싫어지게 되지만 여왕에게선 가장 만족을 느끼고 난 그 순간부터 진짜 욕구를 느끼게 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야비스런 것도 여왕에게는 괜찮게 어울리거든요. 그러기에 거룩한 사제들도 여왕의 방종함만은 축복을 할 지경입니다.

Age cannot wither her, nor custom stale  
 Her infinite variety: other women cloy  
 The appetites they feed, but she makes hungry  
 Where most she satisfies. For vilest things  
 Become themselves in her, that the holy priests  
 Bless her when she is riggish (2.2.241-246)

클레오파트라라는 다름의 번역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자율성은 반복적으로 전개되며 특히 2막과 5막에서 정점화 되어 재현된다. 에노바부스는 이집트의 매력에 대

항하는 동시에 자신의 동료와 관객에게 클레오파트라만의 독특한 매력을 말해주는 중심인물이다. “세월도 그녀를 시들게 할 수 없고 어떤 관습도 그녀의 무한한 다양성을 진부하게 만들 수는 없다 Age cannot wither her nor custom stale her intimate variety” (2.2.236-7). 그는 시드누스에서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여왕이 탄 배는 번쩍번쩍 빛나게 닦아 놓은 황금 옥좌처럼 찬란했었죠. 배의 뒤쪽은 황금으로 얇게 깔려 있었고 돛은 자주색 비단인데 피워놓은 향내가 진동하여 바람조차 사랑에 애가 타는 듯 하느적 거렸죠. 그리고 당사자인 여왕은 표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였죠. 금실을 섞어 짠 얇은 비단 차일 밑에 비스듬히 누웠는데 자연의 조화를 압도하는 어느 화가의 상상력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속의 비너스 여신을 무색케 할 정도로 아름다웠소

The barge she sat in, like a burnish'd throne  
 Burn'd on the water: the poop was beaten gold;  
 Purple the sails, and so perfumed that  
 The winds were love-sick with them; the oars were silver, For her own person,  
 It beggar'd all description: she did lie  
 In her pavilion - cloth of gold, of tissue -  
 O'er-picturing that Venus where we see  
 The fancy outwork nature (2.2.191-201)

셰익스피어 작품의 매력은 이 유명한 로맨스의 양쪽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취한 안토니아와 창녀 같은 클레오파트라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재현함과 동시에, 그러한 존재 위에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존재로서 두 사람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거리에서 전시되며 극장에서 희극배우의 역할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을 상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지난 인물들이고 안토니아는 자주 술에 취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이며 클레오파트라는 허영에 찬 변덕스런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자질들을 지니고 있다.

스카루스(Scarus)는 클레오파트라의 도주에 대해 경멸스럽게 묘사한다.

그 이집트의 더러운 늙은 쓸모없는 말은 문둥병이나 걸렸으면 속시원 하겠네!  
글쎄, 싸움이 무르익어갈 때 그것도 양편의 형세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데, 아니지 어찌 보면 이쪽이 약간 우세해 보이는 편인데 - 오뉴월 쇠  
파리에 물린 암소처럼 별안간 돛을 올리고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Yon ribaudred nag of Egypt,/Whom leprosy o'ertake! - I' the midst o'  
the fight,/ When vantage like a pair of twins appear'd/ Both as the  
same, or rather ours the elder, -/ The breeze upon her, like a cow in  
June, / Hoists sails, and flies. (3.10.10-15)

클레오파트라를 늙어서 쓸모없어진 말(nag)에 견주어 묘사한 것은 많은 비평가의 관심을 끌었다. 자주 간과되어진 에노바부스의 당혹스러운 방백-전투 직전에 말해진 예언적인 음담패설-“수말과 암말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수말은 완전히 녀털 잃어버릴 거야. 암말이 군졸을 태운채로 수말을 낚아채 갈 테니 말이지 If we should serve with horse and mares together,/ The horse were merely lost; the mares would bear/ A soldier and his horse(3.7.6-9)”에서 쓰인 말장난은 ‘merely lost’ 와 ‘bear’에서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이는 병사들과 그들의 수말이 여성과 암말이 함께하는 상태에서는 전쟁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암말들은 병사와 수말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그들을 등에 태움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드러낼 것이다. 암말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여성의 성적 욕망을 상징한다(Miola. 141). 이 인용문에서 암시하듯 클레오파트라는 비너스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잔인한 파괴행위와 그리고 무분별한 도주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셰익스피어의 클레오파트라를 6월의 암말과 암소에 비유하는 것은 그녀를 여성의 성(sexuality)의 적극적인 원칙들을 재현하는 모순적인 생명체로 묘사하는 것이다. 클레오파트라만이 성적 욕망의 광기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안토니 또한 성적 욕망으로 불타도록 만든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무대 위에서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을 상상해보며 몸서리친다.

재치 있는 희극 배우들은 즉석에서 우리들의 신세를 연극으로 꾸며 알렉산드리아의 술잔치 장면을 연출할 테지. 안토니우스는 필시 방탕 속에 빠진 술 취한 모양으로 나올 게고, 어떤 풋내기 소년이 창녀 같은 분장을 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연기하겠지

The quick comedians

Extemporally will stage us, and present

Our Alexandrian revels: Antony

Shall be brought drunken forth, and I shall see

Some squeaking Cleopatra boy my greatness

I'th' posture of a whore (5.2.216-221)

이 장면은 극중에서 극도의 자의식이 표출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셰익스피어의 극중에서 본 것—취한 안토니와 변덕스러운 클레오파트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진실이다. 자살을 결심하고서 그녀는 명령한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신과 같은 여왕으로서 연기하며 이는 그들의 뚜렷한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안에서 발견하는 왕족으로서의 위엄이며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Dutton 77). 셰익스피어의 클레오파트라의 자살에 대한 해석은 플루타크의 해석과 판이하게 다르다. 플루타크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패전과 안토니와의 사별로 인해 자살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극에서는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의 승전에서 전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로마의 거리에서 풍자 되는 것을 상상할 때 의식(ceremon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프로쿨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그녀의 자살이 어떻게 시저로 하여금 그의 고상함이 잘 구현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인지를 설명한다(5.2.43-4). 그의 관심사는 오직 시저가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듣는 것은 그 말 이면에 숨겨진 그의 생각이다. “그녀의 로마에서의 삶은 우리의 승리가운데 영원할 것이다 her life in Rome/ Would be eternal in our triumph (5.2.187)”.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의 자살은 시저로부터 그의 영원한 승리를 갖

아가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죽음을 의식화함으로써 클레오파트라라는 하나의 무대를 다른 무대를 가지고 반항하고 자신의 신비로움이 번역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다. 이집트 여왕의 의상을 갖춰 입고 왕들의 무덤에서 패전한 안토니의 귀환을 기다리는 클레오파트라라는 그녀만의 신비로움과 이국성을 극대화시켜 자신의 이집트성이 훼손되고 조롱당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녀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식화는 자신의 다름의 번역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자율성을 최대한 장엄하게 재현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용한다.

#### 4. 나가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자신의 유언에서 두 번 결혼했었던 전 남편인 리차드 버튼의 무덤 옆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한다. 비록 리차드의 아내가 거부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녀가 영화 *Cleopatra*에서 리차드와 함께 보여준 클레오파트라의 연기를 보면서 필자는 그들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그 계기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그녀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에로스적 측면이다. 필자는 안토니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그녀의 이국성에 기초한 것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관계의 핵심으로서 안토니의 에로스적 과도함과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여왕으로서의 이국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Antony and Cleopatra*에는 여행자로서의 안토니의 모습이 부각되어 재현되어 있고 이는 플루타크의 원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모티브이다. 즉,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는 알렉산더 신화와 헤라클레스의 신화가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알렉산더 신화는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더의 후손 즉 그리스인이라는 점과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공주 록사나와의 이종족 결합을 함으로써 이종족 결혼을 용인한 점에서 강화되어 나타난다. 혼종 결혼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그리스 후손으로서의 긍정적 인식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원전과 다르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헤라클레스의 신화는 영웅적 난잡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토니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과도한 사랑은 그의 영웅적 난잡함과 여행자로서의 인간적 모습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토니의 “맹목적인 사랑이 도가 지나 쳤다”라고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희곡인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특징짓는 것은 안토니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그 사랑의 기초로서의 클레오파트라의 이국성이다. 그의 결단과 용기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자살 장면에서 그는 로마와 그 가치들을 거부하며, 자신의 뛰는 심장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치며, 죽음 후의 클레오파트라와의 해후를 기대하며 새로운 초월을 꿈꾼다. 또한 클레오파트라의 이국성은 안토니가 나일강의 악어에 대한 레피두스와의 대화에서 보여주듯이 번역과 언어적 차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녀의 신비로움은 ‘미지의 것’ 이라고 규정된 그녀만의 이집트 여왕으로서의 고유함과 화려함이며, 그녀는 또한 자살 장면에서 자신의 이집트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자신의 이집트 성이 훼손되고 조롱당하는 것을 저지한다. 그녀의 이국성은 안토니를 사로잡은 무기였던 동시에 자신의 이집트 여왕으로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장엄하게 재현시킨 기제였다.

주제어 | 셰익스피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코스모폴리타니즘, 자율성, 과도함, 이국성

## 인용문헌

- 김경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 나타난 페미니즘 전략과 그 한계」. *Shakespeare Review* 42 (2006): 641-69.
- 윤희역.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바흐친적 패러디 양식과 다성성의 세계」. *Shakespeare Review* 46 (2010): 755-74.
- 이경옥. ‘Eros in *Antony and Cleopatra*: The Impossibility of Grasp’. *Shakespeare Review* 42 (2006): 561-79.
- 이용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의 이중파국」. *Shakespeare Review* 43 (2007): 501-18.
- 이행수. 「인간본성의 상징으로 본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Shakespeare Review* 49 (2013): 481-500.
- 조윤경. 「셰익스피어의『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와 뮤지컬 <클레오파트라>(2008)의

- 비교연구」. *Shakespeare Review* 45 (2009): 407-28.
- \_\_\_\_\_. 「할리우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의 변신과 오리엔탈리즘 담론」. 2013 ELLAK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413-26.
- Crane, M. T. "Roman World, Egyptian Earth: cognitive difference and empire in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in *Comparative Drama*. 43.1 (2009) 1-18.
- Dutton, Richard. *William Shakespeare: A Literary Life*.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89.
- Eagleton, Terry. *William Shakespeare*. Oxford: Blackwell, 1986.
- Gillies, John. "'The open worlde': the exotic in Shakespeare." *Shakespea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Cambridge: Cambridge UP, 1994. 112-122.
- Havely, C. P. "Imperialism and *Antony and Cleopatra*." *English Review-Oxford*-21.4 (2011): 12-14.
- Kluge, S. "An apology for Antony, morality and pathos in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Orbis Litterarum*. 63.4 (2008): 304-334.
- Mankiewicz, J. L. *Cleopatra*. Beverly Hills: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1963.
- Miola, Robert S. *Shakespeare's Rome*. Cambridge: Cambridge UP, 1983.
- Ryle, S. J. "*Antony and Cleopatra*, Mankiewicz and the sublime object." *Adaptation*. 4.1 (2011): 66-107.
- Shakespeare, William. *Antony and Cleopatra*. Ed. M.R. Ridle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54.

## ABSTRACT

**Exorbitance and Exoticism in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Mi-Kyong Kim**

The representation of Antony as a voyager is foregrounded in Shakespeare's play, *Antony and Cleopatra*, and the motif of 'exorbitance' and 'exoticism' is importantly dealt with. Antony's exorbitance is erotic rather than imperialistic. Antony is excessive in love. The first words of the play provide us with the information that 'this dotage of our General's/ O'erflows the measure' (1.1.1-2). Therefore, Antony makes it a rule to refuse to set a limit on love. His new world naturally demands the death of the world he once possessed: "Let Rome in Tiber melt, and the wide arch/ Of the ranged empire fall. (1.1.35-6)". Antony submits himself to Cleopatra and takes the abundant Nile as his measure.

Cleopatra's exoticism is the power to stimulate Antony's exorbitance. Antony's judgement is bewitched by the 'enchanted queen' (1.2.123). Refer to Enobarbus's description of the meeting of Antony and Cleopatra on the Cydnus (2.2.197-212). Cleopatra's power to enchant her lover is her exotic quality as a Egyptian Queen. When Lepidus asks 'what manner o' thing is your crocodile?' (2.7.40), Antony answers, 'It is shaped, sir, like itself, and it is as broad as it hath breadth.' (2.7.41-2) In this joke, Antony refuses to translate Cleopatra to Roman people. The untranslatable mystery of Cleopatra's difference is what is significant in the last act of the play. Cleopatra commits suicide fundamentally to avoid being displayed in Caesar's triumph in Shakespeare which is different from Plutarch. Cleopatra's suicide preserves her exotic mystery from translation and functions as a method to keep her autonomy.

**Key Words** | cosmopolitanism, exorbitance, exoticism, eroticism, autonomy, difference, irreversible body.